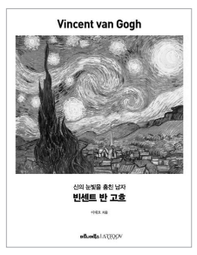
한국 미술사학자가 바라본 고흐의 작품 세계

빈센트 반 고흐: 신의 눈빛을 훔친 남자

이태호 지음



프랑스 오베르쉬르우아즈는 빈센트 반 고흐를 사랑하는 이들이 꼭 찾는 장소다. '까마귀가 있는 밀밭'의 배경이 된 들판을 따라 오르다 고흐의 무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애틋해지고 만다. 살아생전 단 한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고, 결국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 고흐 곁에는 평생 형을 위해 헌신했던 동생 테오의 무덤도 함께 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작품 세계와 삶을 들여다본 '빈센트 반 고흐:신의 눈빛을 훔친 남자'가 나왔다. 필자는 한국미술사를 공부한 이태호 명지대 석좌교수다. 이 교수는 집필에 앞서 네덜란드, 벨기에를 거쳐 반 고흐 회화 세계를 완성한 프로방스의 아를과 생레미까지 답사했고, 책에는 생생한 현장 풍경도 함께 담겼다.

책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불멸의 화가 반 고흐, THE GREAT PASSION'(2025년 3월16일까지)전의 공식 아트북으로 출간됐다. 네덜란드 국립 크뢸러 뮐러 미술관과의 협업으로 열리는 전시는 이 미술관이 소장한 유화 39점 등 모두 76점을 선보이는 기획이다.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던 고흐가 화가로 활동했던 시간은 1880년부터 1890년까지 10년에 불과했지만 그가 쏟아낸 작품들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사람들은 그를 '불꽃의 화가', '태양의 화가', '불멸의 화가'로 부른다.

▲'신발 한 켤레'
▶'빈센트의 방(화가의 방)'
〈마로니에북스 제공〉

"반 고흐는 신의 마음을 훔친 눈빛으로, 신이 내린 인간과 대지를 광기와 영혼을 쏟아 그림으로 그린 작가"라 평한 이 교수는 "책을 집필하며 그의 고난의 인생 역정보다 변혁으로 근대 사회가 다져지던 시대, 네덜란드 상류층 출신 청년이 고향을 떠나 프랑스에 정착해서 세계적인 화가로 발돋움한 길을 찾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책은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예술, 그리고 동아시아 예술론', '작품 세계, 인간과 자연의 예술적 융합' 2부로 구성돼 있다. 네덜란드 시절(1880~1885)에서는 "근대 문명의 그늘처럼 리얼리즘의 감명이 처연하게 드리워진" '감자 먹는 사람들'을 비롯해 밀레 화풍의 풍속화와 풍경화를 들여다본다. 프랑스 시절(1886~1890)에서는 "손에 신이 내린 듯, 신명을 탄 색깔과 붓질이 꿈틀거리는" 인상주의 화풍의 작품들에 대해 소개한다.

본격적인 작품 분석은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등 장르별로 분류해 시간 순으로 배치, 고흐 작품 세계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미술사학자가 들려주는 고흐 이야기는 역시나 색다르고 흥미롭다.

저자는 그의 초상화에서 조선시대 사대부의 초상화를 끄집어내고, 고흐의 '하얀 과수원'과 오지호의 '임금원(사과밭)'을 나란히 보여주며 색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또 일본의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고 중국 청나라의 좋은 먹을 사용하기도 했던 고흐의 편지글 등을 통해 동양의 선불교나 노장사상을 연상시키는 대목들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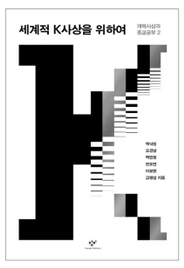
이 책이 주는 즐거움은 생생한 도판이다. 국내외에서 발간한 고흐 관련 저술과 도록에 등장한 500여점 중 저자가 현지에서 직접 감상한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와 관련해 의미있는 그림 100점을 실었다.

〈마로니에북스·2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반도 개벽사상의 세계화 가능성을 논한다

세계적 K 사상을 위하여

백낙청 외 지음



신간 '세계적 K사상을 위하여'는 지난 2월 출간된 '개벽사상과 종교공부'의 후속 작이다. 전작에 이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종교학자(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명예교수), 유학연구자(백민정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 원불교 교무(전도연 원불교대학원대 총장), 만화가(이보현), 기자(한겨레 고명섭) 등 5명과 좌담을 하며 K사상을 심층적으로 파고든다.

2023년 한 해 동안 유튜브 '백낙청 TV'에서 살펴본 동학과 천도교, 증산도, 원불교 같은 한반도 고유의 후천개벽사상과 운동 등 K사상 관련 대담을 묶었다.

'K사상'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한반도에서 나타난 우리의 독창적인 종교이자 사상'인 동학·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등을 의미한다.

백 교수는 서문에서 "한반도를 발신처로 하되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 마땅하다는 의미의 'K사상'은 여타 한류 현상과 달리 한국 내에서조차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면서 '세계적 K사상'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세계적 K사상'이라 한 것은, 비록 대중문화에서처럼 현실적인 '세계화'가 이미 이루어진 건 아니더라도 이 땅이 산출한 독특한 사상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아직도 우리가 알아보고 가려내며 진전시켜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담은 것이다."

신간은 1장 '세계종교에 담겨있는 개벽사상'과 2장 '물질개벽시대, 유교의 현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3장 'K사상의 세계화를 모색하는 원불교', 4장 '인간해방의 논리와 개벽사상', 보론 '하이데거와 후천개벽사상의 만남'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 백 교수와 오강남 교수는 '종교 내적 대화' 등을 통해 개벽사상의 세계성과 보편성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유학을 공부하는 백민정 교수는 2장에서 "동학이나 원불교 등 여러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개벽사상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숙고해야 오래된 유학 전통도 유교적 현대성의 맥락에서 이 시대의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개벽사상으로 유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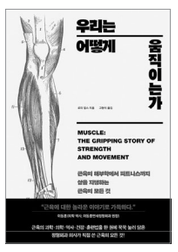
3장에서 전도연 총장은 '대종경'에 기록된 소태산 대종사의 "장차 불교가 세계적 주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중심으로 원불교의 세계화 노력을 들려준다. 4장은 백 교수의 저서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1979년)와 개벽사상의 연결점을 찾으며, 보론은 D.H 로런스와 마르틴 하이데거 철학과 김수영의 시, 후천개벽사상 등에 대해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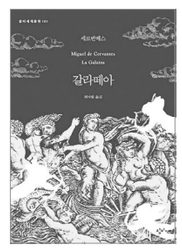
활자로 전달되는 종교학자 등 석학들의 대담은 심오하고 난해하다. 그렇지만 실제 대담을 듣는 듯 한 현장감을 갖고 탐독하는 독자들은 되새김질 속에서 근대기 한반도에서 태동한 후천개벽, K사상을 화두로 삼아 더욱 깊이 있게 빠져들 수 있을 듯하다. 저자는 '우리 시대의 누구에게나 권할 만한 일종의 국민교양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창비·2만5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등산하고 난 다음 날이면 종아리가 당기듯이 아프다. 하산하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종아리 근육은 몸무게를 버티며 근섬유가 늘어나는 '편심성 수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격렬한 운동을 한 뒤 한참 뒤에 나타나는 통증을 지연성 근통증이라 한다. 액틴-미오신 사슬 변형이나 젖산 축적, 근육 겉막 문제라는 등 근통증에는 여러 가설이 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근육에 대한 비밀들을 살펴본다. 〈해나무·2만 원〉





▲갈라떼아=돈키호테로 알려진 세르반테스가 쓴 최초의 소설이자 서양 근대소설의 원형이라 평가받으며 문학사를 관통하는 책. 세르반테스의 일생과 연관이 깊은 작품으로 그가 1571년 벌어진 레반또 해전에 참전했다가 왼팔을 잃은 뒤, 튀르키예 해적에게 납치되어 5년간 포로생활을 하며 빚을 갚으려 이 소설을 썼다. 전통 목가시와 달리 이상적 인물형을 뒤틀면서 자신만의 비극과 고뇌하는 세계상을 구현해 낸다. 〈창비·2만1000원〉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세상이 종말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삶의 불행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메시지를 건넨다. 늘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은 방향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나아가 어른이 되어도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에 지난날은 회한으로 가득하고, 행운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비관하는 것을 넘어 신학교 진학 경험을 매개로 고통받는 인간을 어떻게 위무할지, 고통에 초연해지는 방법을 알려준다.

〈라의눈·1만6800원〉

▲여자 주인공들=이경, 수연, 이화, 희원, 희재 등 한국 소설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들을 통해 여성의 삶과 운명을 마주한다. k장녀의 존재론을 탐구하는 '나목'의 이경을 시작으로 여성의 성장에 대해 탐구하는 '레테의 연가' 속 희원 등 소설의 인물들을 포착한다. 90년대식 사랑을 조명하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진희나 중년 예술가의 불온한 사랑을 담는 '그녀의 여자'의 현석화 등 이야기도 흥미롭다.

〈생각의힘·1만9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나=플라스틱 원료인 석유가 나오는 유전에서부터 슈퍼마켓, 우리의 손까지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복잡다단하다. 수많은 단계를 거치며 조금씩 불거지는 '플라스틱 점가제',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들여다보고, 불평등과 기후 위기 및 플라스틱 재활용이나 축적 등의 해결법을 살펴본다. 〈작은것이아름답다·1만8000원〉

▲강아지 탐정 와츠=소심해 보이지만 뛰어난 관찰력을 지녀 결국 사건을 해결하는 강아지 와츠, 호기심이 풍부하고 똑똑해 질문을 잘하는 고양이 펄이 만났다. 취미나 성격이 다른 둘은 사랑이 넘치는 탐정 듀오를 결성해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가끔 의견 충돌로 다투기도 하나 이들은 '한 팀'을 이뤄 목표를 달성한다. 〈한빛에듀·1만5000원〉

▲나도 루돌프가 되고 싶어=산타 나라에는 순록 아모가 살고 있다. 아모는 남들처럼 멋진 뿔이나 빨간 코가 없기에 고민이 많다. 자신감을 잃은 아모는 어느 날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차례차례 해나가기로 결심한다. 산타의 옷 손질하기, 썰매 점검하기 등을 통해 아모는 자신감을 찾아가지만 언젠가 진짜 산타의 썰매를 끌 수 있을지 걱정한다.

〈풀빛·1만4000원〉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無 착색료 감미료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